

# 제주마을의 공간구성 특징에 관한 연구

- 협재마을을 中心으로 -

김 태 일<sup>1)</sup>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는 제주도를 관광지개발에 정책적 중심을 두어, 관광지로서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관광지 개발론은 제주지역의 낙후성 탈피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개발 그 자체가 도민 주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다른 지역민의 자본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었기 때문에 계층간의 괴리감과 함께 건축의 지역성·향토성 상실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안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주 전통마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새마을 운동, 관광지개발,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마을풍경과 공간구조가 바뀌게 되었다.

도시나 마을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마련한 삶의 터임과 동시에 그 시대의 문화수준과 사회상을 표현하는 유산이기도 하다. 한라산을 배경으로 나지막하고 웅기중기 군집(群集)을 이룬 마을모습, 완만한 곡선과 높은 담장의 집들의 풍경, 대화의 장소이기도 하고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였던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팽나무, 포제단 등과 같은 삶의 공간과 혼재은 이제 자료집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제주의 삶의 문화인 것이다.

그러나 비록 초가집이 슬레이트나 콘크리트 건축물로 바뀌었어도 건축물의 위치와 마을의 공간은 크게 변하지 않은 곳이 많다. 게다가 건축물의 형태와 위치가 바뀌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모습 그 자체가 마을을 형성하였던 과거의 주요 부분이 될 것이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가 존재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해안마을이 더욱 변해가기 전에 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자료를 정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마을조사와는 달리 바다에 접한 해안마을의 지리적 특성상 바람과 마을 배치 관계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마을의 공간구성, 가옥의 배치 등 학술적인 자료수집이 주요 목적이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1 실측대상과 조사범위

본 마을조사가 이루어졌던 지역의 범위는 한림읍 협재리에 한정하여 마을의 가옥의 배치형태와 도로개설현황 등 마을공간구조에 대한 실측조사가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협재리 마을에 소재한 모든 건축물을 실측조사의

대상으로 하여 초가, 와가뿐만 아니라 이전의 가옥배치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슬레이트, 함석 또는 시멘트기와 지붕의 가옥도 실측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거주자의 조사 거부, 폐허 주택, 조사기간 동안의 거주자부재 등의 이유로 실측조사를 할 수 없었던 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실측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가옥의 공간구조와 재료, 배치형태, 그리고 외부공간의 형태, 조정, 출입구와 도로와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실측하였다. 협재마을의 실측조사 건수는 총 120세대에 대하여 실측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마을조사에서는 크게 공간과 시간에 초점을 두어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공간적 측면에서는 개별 가옥의 형태와 배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보다는 마을 전체의 공간분석에 초점을 두어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간적 측면에서는 실측조사에 의한 마을 현황분석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마을의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하여 왔는가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서 현황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협재마을 조사에 초점을 두었던 조사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공간적 내용

-가옥의 내부공간 구조 및 지붕형태, 배치형태에 대한 실측

-협재마을의 도로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실측

-협재마을의 토지이용 및 도로현황

#### ■시간적 내용

-협재마을의 연혁

-협재마을의 도로개설변화

-협재마을의 시계열별 공간구성변화(1967년 ~ 2003년)

-인구 및 세대수의 변화

### 2-2 방법 및 기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사에서는 마을을 단위로 하는 공간구조분석과 시간적 흐름 속에서의 변화형태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가옥배치 및 도로를 포함하여 마을의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축척 1/5,000 지형도와 같은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매년도마다 수정 보완되지 않아 마을의 공간구조변화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196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항공촬영 사진을 토대로 협재마을의 가옥들을 재구성하여 공간변화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축척 1/5,00)를 이용하여 가옥의 구성형태, 도로체계, 경작지분포, 지형형태 등 마을의 공간구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황분석을 위해 이후 변화된 마을의 공간분석을 실측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본 조사의 목적인 공간구조의 시계열별 변화를 파악함과 아울러 마을의 공간과 개별가옥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자료의 수집 정리 하였다.

협재마을 조사는 협재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2002년 8월19일~8월24일(6일간)에 걸쳐 1차 실측조사가 13명의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차 실측조사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2003년 6월14일에 2차 보완조사가 이루어졌다.

1)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II.본론

### 1.협재마을의 마을배치 특성

#### 1-1 협재마을의 입지분석

우리나라 마을은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원칙을 따라 전면에는 하천을 두면서 산을 등지고 마을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육지부에서 적용되는 풍수론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림1은 제주도를 촬영한 위성사진으로 한라산을 제외한 그다지 높지 않은 오름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산동(山東)과 비교적 완만한 지형적인 조건을 가진 산서(山西)가 서로 상이한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천다운 하천이 없고 특히 지질조건에 있어서도 달라 마을 형성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sup>.

이와 같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육지부와는 달리 산수(山水)가 명확하지 않아 형국(形局)이 열린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인위적으로 비보(裨補)에 의해 지형적으로 허한 부분을 만회하여 했던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방사탑, 마을 숲 등이 그 예인데 연평동, 영월리, 남읍에 마을 숲이 있다<sup>3)</sup>.

기본적으로는 풍수지리설의 형국론(形局論)에 따라 좌 청룡 우 백호에 의한 분지형의 지형에 배치하는 원칙에 따르지만 마을의 입지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제주도의 지질학적 특성상 식수확보의 용이성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의 생산성 확보였다고 할 수 있다.

취락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는 무엇보다 식수였을 것이다. 이것은 해안지역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형성되는 것과 가옥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식수를 얻을 수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주도의 하천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로 남과 북으로 흐르고 있어(그림2), 그나마 비가 올 때 흐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건천이다. 한라산의 동·서측에는 거의 하천이 흐르지 않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질의 투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는 거의 해안선에 용천수가 흐르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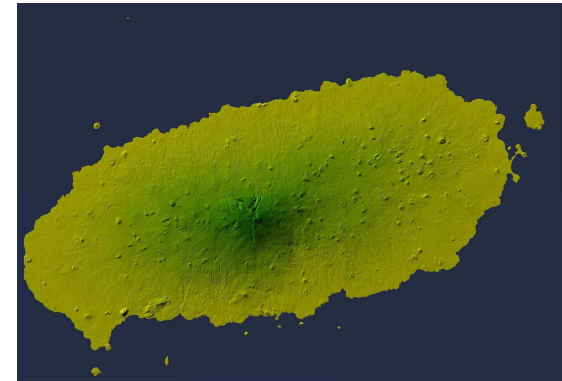


그림1. 제주도 위성사진(환경부 위성사진자료를 편집한 것임)



그림2. 제주도의 주요하천 분포

그림3은 제주지역의 마을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안선과 중·산간 지역에 마을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동과 산서의 지역적 구분에서는 산서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지역에서는 취락형태가 해안지역, 내륙지역 혹은 산남 혹은 산북지역에 따라 다른 취락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촌(集村), 소상집촌(疎狀集村), 산촌(散村)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sup>.

2) “토양, 마을 형성에 큰 영향” 제민일보 2003.6.13 기사

3) 김석윤(1996),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5

4) 제주도(1993), 「제5장 인구와 취락」, 제주도지 제1권, PP.486~488

취락의 형태에 따라 집촌(集村)과 산촌(散村)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능에 따라 농촌, 어촌, 산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제주도(1982), 「제6장 인구와 취락」, 제주도지(상), P.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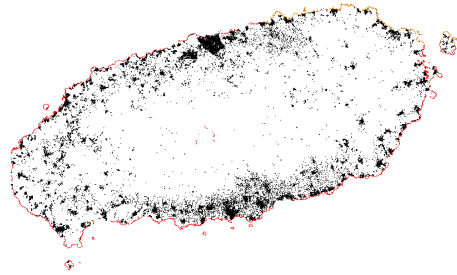


그림 3. 제주지역의 마을 분포현황  
(1995년 현재, 국립지리원 수치지형도 1/2500을 이용하여 작성)

집촌(集村)은 산북지방의 해안지대로부터 산남지방의 서부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취락형태로서 괴촌(塊村)의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가구수인데 상한적 임계치를 가지는데 가구수 300호를 넘는 것이 산남지역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소상집촌은 가구밀도가 집촌보다는 낮은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로서 산남지역의 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물을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옥을 둘러 심어 놓은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지의 면적을 크게 하여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유리하였다. 따라서 해안지역의 집촌과는 달리 가구수가 적고 취락의 형태도 분산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취락유형이 산촌(散村)이다. 이것은 중산간지역의 내륙에 산재하였던 취락형태로 해발 100m이상의 내륙지역에 분포하는데 한라산의 북동과 남동지역의 완만한 고지대로서 교래, 봉개, 광평, 상창, 상천, 동광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그림4).

협재마을의 경우도 주요 하천이 없어 주요 식수원인 용천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림5는 협재마을의 용천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가옥도 거의 해안을 따라 집중되어 있는 집촌(集村)의 취락형태를 하고 있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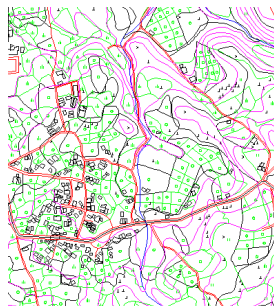


그림 4. 산촌의 사례(봉개지역)



그림5. 협재마을내 용천수 분포와 입지형태



그림6. 협재마을의 가옥분포(집촌형태)

## 1-2 협재마을의 공간이용개념

이와 같이 용천수를 중심으로 해안을 따라 선형(線型)적으로 발달한 협재마을은 기본적으로 포구를 중심으로 발달하면서도 해안지역의 지질학적 특성과 거센 바람에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륙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거주공간인 해안지역과 연계하는 형태의 취락공간구조를 이루고 있다.

취락의 생산 장소는 기본적으로 어장(漁場)과 목장, 경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확실한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연히 바람이 세고 지질 또한 다공질의 해암기반에 해수가 침투하기 쉬워 토지에 염분이 많아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해안지역보다는 내륙지역이 유리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 때문에 경지(耕地)는 해안으로부터 일정한 고도와 거리를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경지(耕地)와 촌락과의 관계에 의한 마을공간구성에 대해 김석윤(1996)은 육지부의 마을은 촌락주위를 개인텃밭과 개인경지, 배후지의 순으로 둘러싸는 있는 반면 제주 해안 마을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바다에 접하면서 개인텃밭은 주거공간에 속하고 개인경지와 목장이 둘러싸는 육지부와 다른 마을공간구성을 설명하고 있다<sup>5)</sup>(그림7). 한편, 泉 靖一(1972)는 중산간 마을과 해안마을의 차이점에 대하여 중산간 마을은 경지가 취락을 둘러싸고 있는 반면 해안마을은 경지가 분리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중산간 마을과 구별됨을 강조하였다<sup>6)</sup>(그림8). 특히 해안마을의 경우 농번기(農繁期)와 어번기(漁繁期)가 거의 동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중산간 마을 보다는 어장과 경지를 마을과 밀접하게 배치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목장이 해안마을로 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축은 중산간 마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생산성 확보의 문제 때문에 경지(耕地)가 촌락을 둘러싸는 집속형의 산촌(山村)과는 달리 해안마을은 촌락과 경지(耕地)의 분리형이 특징이다.

협재마을의 경우도 약간 높은 지형에 의하여 둘러싸인 평탄지역에 위치하면서(그림9, 그림10) 경지(耕地)의 일부는 취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지는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에 집단적으로 형성되

5) 김석윤(1996),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3-34

6) 泉 靖一(1972), 泉靖一著作集1 フィールド・ワークの記録 (1)、讀賣新聞社, pp.163-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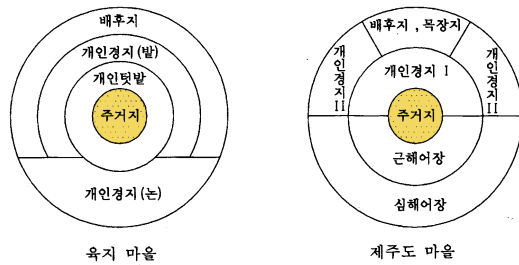


그림7. 육지마을과 제주마을의 공간구조개념  
(인용:김석윤(1996),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어 있어 촌락과 경지의 분리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형적 조건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봉천수 확보여부도 취락과 경지의 위치결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인데 그림11과 그림12은 각각 협재마을의 경지분포와 봉천수의 분포위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지형적인 조건과 봉천수 확보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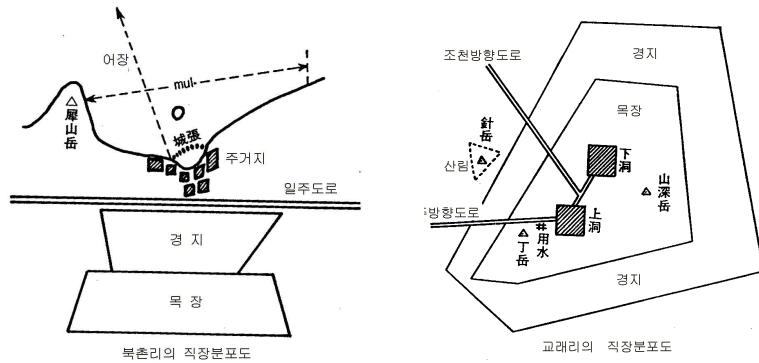


그림8.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의 공간구조 개념(왼쪽:북촌리, 오른쪽:교래리)  
(인용: 泉 靖一(1972), 泉靖一著作集1 フィールド・ワークの記録 (1) )



그림9. 협재마을의 도로현황과 가옥·경지 분포



그림10. 3차원 지형으로 본 협재마을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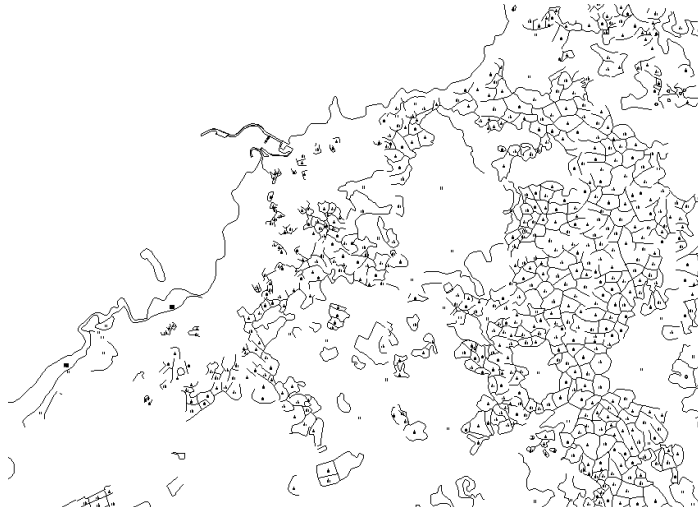


그림 11. 협재마을의 경작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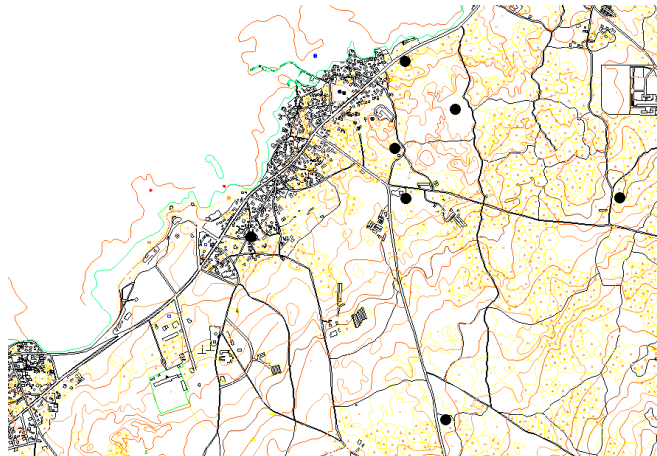


그림12. 협재마을의 경작지분포와 봉천수의 분포와의 관계

## 2.협재마을의 집터잡기(배치방향)와 택지분활형태

### 2-1 협재의 집터잡기(배치방향)

앞서 마을의 입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듯이 제주를 풍수지리적인 영향보다는 기후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육지에서 볼 수 있는 남향집에 동(東) 대문의 집터잡기와는 달리 자유로운 방위 개념에 따라 집터가 결정되었다. 남향을 선호하는 육지와 다른 배경에는 지형적으로 섬의 중앙에 높은 한라산이 자리 잡고 있고 또한 기후가 겨울에도 그다지 춥지 않으며 연중 채명한 날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제주의 가옥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 중 흥미로운 것으로 1925년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일주하면서 제주의 건축을 조사하였던 藤島 亥治朗의 조사 자료이다. 그는 산남 지역과 산북지역의 마을을 둘러보았으나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 부락과 가옥에 있어서 공통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sup>8)</sup>. 즉 산남지역 마을의 가옥은 가옥의 돌담높이가 4尺~5尺정도로 담 너머 집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도 개방적인 반면 산북지역 마을의 가옥은 위요감(圍繞感)이 크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같은 산북이라고 하여도 해안에 가까운 마을인 경우에는 돌담의 높이가 더욱 높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바람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藤島 亥治朗은 많은 가옥이 남쪽에 많이 면하고 있는데 채광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돌담의 높이뿐만 아니라 가옥의 배치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해안마을의 경우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대응하기 위해 돌담을 높이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옥의 배치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순히 남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해안의 강한 바람을 적절히 피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다른 방향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의 1967년~1995년 항공사진을 근거로 하여 가옥의 배치방향을 조사하여 보았다(그림13~그림15).

항공사진을 확대하여 가옥의 출입구와 부지의 경계를 파악함으로써 가옥의 정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나 확대된 항공사진의 정확성이 떨어져 분석 작업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대략적인 가옥의 배치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가옥이 배치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표1은 1967년~1995년의 항공사진상의 가옥배치현황을 크게 4개의 방향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옥의 정면방향이 북동-남서(남서-북동)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북서-남동(남동-북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옥의 배치는 기후조건상으로 볼 때 협재마을의 바람은 해안에 가깝게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항상 강한 바람이 불고 바람의 방향으로 대체로 북, 북북서와 남동, 남남동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즉, 그림16과 그림17은 1997년~2001년 동안 각각 고산지역과 한림지역에서의 측정된 풍향별 관측횟수의 백분율을 나타낸 것으로 대체로 북, 북북서와 남동, 남남동 방향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바람의 방향은 취락위치 및 가옥의 배치 등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즉, 북, 북북서와 남동, 남남동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하여 가옥의 정면배치방향을 북동-남서(남서-북동)로 두고 가옥의 측면을 바람방향으로 둘으로서 측면에서 바람을 받도록 대응한 것이다.

1995년에는 오히려 북서-남동(남동-북서)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점차 RC조의 현대건축물이 늘어나면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가옥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7) 제주도(1996), 「주생활편」 제주의 민속IV, p.436

8) 藤島 亥治朗(1925), 濟州道 の建築 (4)、「朝鮮と建築」 제4집 제6호, p3

9) 藤島 亥治朗(1925), 濟州道 の建築 (4)、「朝鮮と建築」 제4집 제6호, p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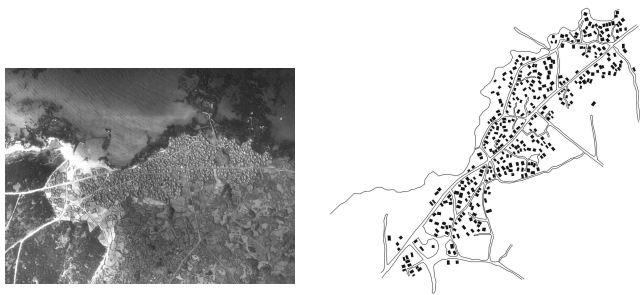


그림13. 1967년의 항공사진과 이를 토대로 작성된 마을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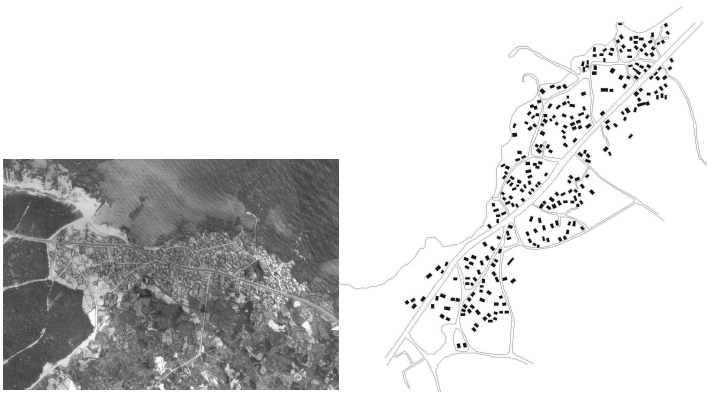


그림14. 1985년의 항공사진과 이를 토대로 작성된 마을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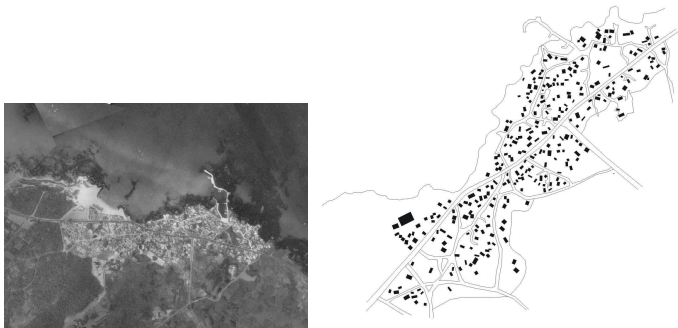


그림15. 1995년의 항공사진과 이를 토대로 작성된 마을배치도

표1. 연도별 가옥 배치방향의 변화비교(1967년,1985년,1995년,2002년)

방위		1967년	1985년	1995년	2002년	
가옥의 정면방향	가옥의 배치방향 (장축 방향)					
남-북 북-남		22	35	69	RC조	14
					조적조	4
					기타	
동-서 서-동		41	28	25	RC조	16
					조적조	8
					기타	
북서-남동 남동-북서		99	86	113	RC조	13
					조적조	4
					기타	
북동-남서 남서-북동		197	115	82	RC조	29
					조적조	9
					기타	
계		359	264	289		

바람의 영향에 의한 가옥배치의 여부와 가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가옥배치가 변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협재마을 전체 가옥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 수치가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지만 협재마을 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가옥의 구조와 배치방향을 정리하여 살펴 본 결과, 가옥의 정면배치방향을 북동-남서(남서-북동)로 한 것이 38채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서(서-동) 방향이 24채로 많았다. 가옥의 구조별로는 조적조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협재마을의 변화를 짐작케 하는데 가옥의 배치방향은 북동-남서(남서-북동)와 동-서(서-동) 방향이 각각 29채와 16채의 순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과거의 가옥배치형태와 비교해 볼 때, 가옥의 구조변화에 따라 배치방향에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으나, 과거에 실시된 정확한 조사 자료가 없어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해안마을의 특성상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 북동-남서(남서-북동) 방향의 가옥배치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외의 가옥배치에 남동-북서(북서-남동) 방향도 많은데 이는 산촌과 달리 밀집된 형태의 해안마을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가옥의 경우 북동-남서(남서-북동) 방향으로 하지만

부지의 토건에 의해 밀집된 형태로 앞뒤 좌우로 다른 가옥이 놓여 있는 경우 다른 가옥이 바람을 막아주게 되어 자연스럽게 비양도 등이 보이는 경관이 좋은 방향으로 배치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비양도와와의 관계이다. 즉, 협재마을에서 바라 볼 때, 비양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지형적 특성상 아름다운 해변과 비양도를 의식하면서 가옥을 배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가옥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외의 변수로는 지형조건이다. 그림18은 협재마을의 지형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일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지에 가까운 지형조건이다. 항공사진을 토대로 작성한 가옥배치위에 지형조건이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조건 아래 현재의 지형도를 삽입하여 가옥배치를 살펴보았다. 그림13~그림15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평지의 조건으로 지형 고저차에 의한 일정한 위계질서를 가진 가옥을 배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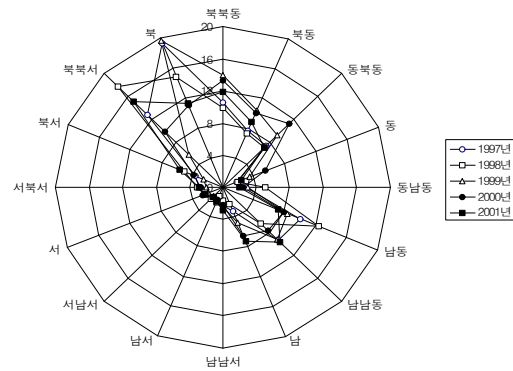


그림 16. 고산지역 풍향별 관측횟수의 백분율(1997년~2001년)  
(자료:기상청 「기상연보」 1998년~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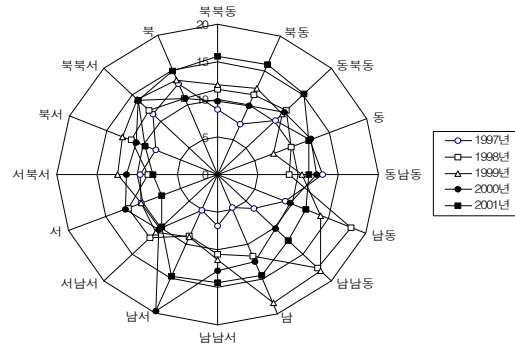


그림 17. 한림지역 풍향별 관측횟수의 백분율(1997년~2001년)  
(자료:기상청 「자동기상관측연보」 1998년~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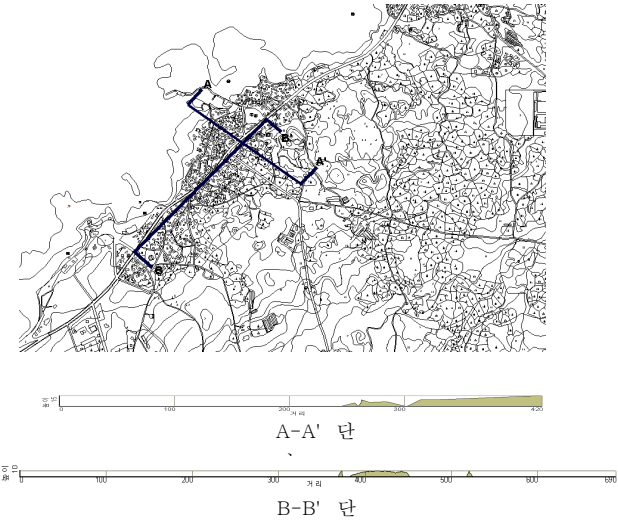


그림18. 협재마을의 지형단면

## 2-2 택지분활형태

한라산이 중앙에 놓인 제주도는 지형적 특성상 육지와 달리 「북좌남향」의 입지조건을 지키기 어렵다. 게다가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설된 도로에 의해 건축물도 자연스럽게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림19)<sup>10)</sup>. 그림21은 도로 방향에 따른 제주도의 가옥 좌향을 나타낸 것으로 동-서 혹은 남북으로 개설된 도로의 조건에 따라 안거리(內棟)와 밖거리(外棟)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이는 채광, 통풍, 그리고 개방감 등의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제주도 가옥 좌향이 자유로운 것이다.

그림20은 협재마을의 부비형태와 가옥배치를 나타낸 것으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주의 지형적 특성과 가후 조건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배치 때문에 부지를 결정한 후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옥이 놓일 위치를 먼저 결정한 후 부지의 경계를 결정하게 됨으로서 부지의 형태 또한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10) 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1권 「제5장 인구와 취락」, PP494~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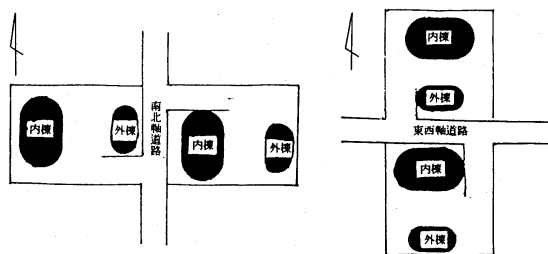


그림19. 제주도 가옥 좌향(왼쪽:서좌동향 오른쪽: 북좌남향)  
(인용: 제주도(1993),제주도지 제1권 「제5장 인구와 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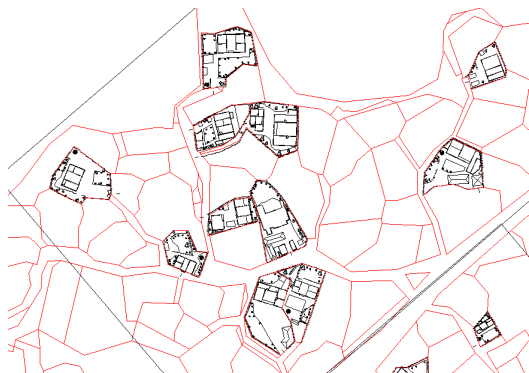


그림20. 부지의 형태

### III. 결론

제주도의 지형적 조건은 투수성이 높은 화산재로 되어 있어 하천다운 하천이 없어 식수확보의 어려움과 농업용수의 확보 등이 마을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취락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는 무엇보다 식수였을 것이다. 이것은 해안지역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형성되는 것과 가옥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식수를 얻을 수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협재마을의 경우도 해안을 따라 형성된 용천수를 중심으로 가옥이 집중되어 있어 집촌(集村)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풍수지리적 관점에서의 취락형성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협재마을의 경우 남쪽으로는 오름에 의해 둘러싸고 지형 자체가 낮아 결과적으로 둘러싸인 형태를 하고 있어서 바람을 피하면서도 후면 배경지역에는 농지를 전면으로는 바다를 통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지라고 할 수 있다.

협재마을의 공간이용에 있어서는 척박한 토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성 확보의 문제 때문에 경지(耕地)가 촌락을 둘러싸는 겹속형의 산촌(山村)과

는 달리 집촌형태를 하고 있는 협재마을과 같은 해안마을의 경우, 촌락과 경지(耕地)의 분리형이 특징이다. 특히 해안마을의 경우 농번기(農繁期)와 어번기(漁繁期)가 거의 동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중산간마을 보다는 어장과 경지를 마을과 밀접하게 배치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목장이 해안마을로 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필요에 따라 가옥은 중산간마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협재마을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경지는 해안으로부터 멀지 않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협재마을의 가옥배치에 있어서는, 협재마을과 같은 해안마을의 경우,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대응하기 위해 돌담을 높이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옥의 배치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순히 남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해안의 강한 바람을 적절히 피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다른 방향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과거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근거로 하여 대략적인 가옥의 배치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는데 가옥배치현황을 크게 4개의 방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가옥의 정면방향이 북동-남서(남서-북동)이 가장 많고 다음이 북서-남동(남동-북서)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 북북서와 남동, 남남동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하여 가옥의 정면배치방향을 북동-남서(남서-북동)로 두고 가옥의 측면을 바람방향(북, 북북서와 남동, 남남동)으로 돌으려서 측면에서 바람을 받도록 대응한 것이다.

이외의 가옥배치에 남동-북서(북서-남동) 방향도 많은데 이는 산촌과 달리 밀집된 형태의 해안마을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가옥의 경우 북동-남서(남서-북동) 방향으로 하지만 부지의 토건에 의해 밀집된 형태로 앞뒤 좌우로 다른 가옥이 놓여 있는 경우 다른 가옥이 바람을 막아주게 되어 자연스럽게 비양도 등이 보이는 경관이 좋은 방향으로 배치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비양도와와의 관계이다. 즉, 협재마을에서 바라 볼 때, 비양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지형적 특성상 아름다운 해변과 비양도를 의식하면서 가옥을 배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택지분활형태에 있어서는 한라산이 중앙에 놓인 제주도는 지형적 특성상 육지와 달리 「북좌남향」의 입지 조건을 지키기 어렵다. 게다가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설된 도로에 의해 건축물도 자연스럽게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협재마을의 가옥배치와 택지형태를 살펴보면 기술한 바와 같이 제주의 지형적 특성과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배치 때문에 부지를 결정한 후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옥이 놓일 위치를 먼저 결정한 후 부지의 경계를 결정하게 됨으로서 부지의 형태 또한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존의 다른 마을 조사보고서와는 달리 협재마을 조사는 도시적 관점에서 마을공간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의 입지 특성을 몇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본 조사를 통해 얻는 새로운 사실은 가옥에 대한 배치이다. 해안에 위치한 협재마을의 경우 가옥의 배치 방향을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가옥의 측면이 향하도록 하였다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다른 요인으로 비양도를 고려한 일종의 경관적인 요소에 의한 가옥배치의 가능성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이와 같은 기후적 조건에 의한 영향에 따른 가옥의 배치뿐만 아니라 택지의 규모와 형태, 그리고 가옥의 출입구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산남과 산북 혹은 산서와 산동의 지역별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을의 경계와 동(洞)의 경계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구분되어지고 있는가 등 도시적 관점에서의 추가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강정효(2000), 화산섬, 제주의 돌 이야기, 도서출판 각
- 2.기상청, 기상연보 (1998~2002)
- 3.기상청, 자동기상관측연보(1998~2002)
- 4.김봉욱(1990),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 5.김석윤(1996),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강행생(1985), 제주도 안·밖거리형 실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 7.고광민(2002),탐라문화학술연구총서(2) 「제주도 포구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8.제주도(1987), 제주건축의 향토성 개념정립과 보급 확대 방안연구
- 9.북제주군, 통계연보19회(1979), 24회(1984), 29회(1989), 34회(1994), 39회(1999), 42회(2002)
- 10.북제주군 한림읍 도시계획자료(1965), 도시계획자료(1977), 한림도시제정비계획(1985), 한림도시계획 제정비(1998)
- 11.제주도(1982), 제주도지 (상)
- 12.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1권
- 13.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2권
- 14.제주도(1996), 「주생활편」 제주의 민속Ⅳ
- 15.崔昌祚(1988), 韓國의 風水思想,민음사
- 16.한림읍(1999), 한림읍지
- 17.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1999), 제주의 마을공간조사보고서(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 18.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2000), 제주의 마을공간조사보고서(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
- 19.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2001), 제주의 마을공간조사보고서(서귀포시 예레동 하례)
- 20.金奉鉉(1988), 濟州道の地名考, 東京:國書刊行會
- 21.泉 靖一(1972), 泉靖一著作集1 フィールド・ワークの記録 (1)、讀賣新聞社
- 22.朝鮮總督府(1935), 濟州道勢要覽 濟州道(生活狀態調査 其二) 影印本,서울:景仁文化社
- 23.朝鮮總督府(1933), 朝鮮の聚落 (前編) (生活狀態調査 其五)
- 24.朝鮮總督府(1933), 朝鮮の聚落 (中編) (生活狀態調査 其六)
- 25..藤島玄治郎(1925), 「濟州島の建築 (4)」朝鮮と建築, 第4輯 第6號